

광주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붐업 나섰다

지역 실업팀 선수단, 내달까지 14개 초교 체험 프로그램 광주시·광주은행·광주여대·남구청팀 참여 양궁 매력 홍보

광주시가 내년 9월 열린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찾아가는 양궁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사전 붐업에 나섰다.

광주시는 10일 "오는 12월18일까지 지역 초등학교 14곳을 찾아 약 600여명의 학생들과 양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체험 프로그램은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양궁을 즐기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광주시·광주은행·광주여대·남구청 양궁팀 등 지역 실업팀 선

수단이 참여하며 학생들이 양궁의 기본 원리와 규칙부터 양궁 교구를 활용한 활쏘기까지 2시간 동안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앞서 지난 8일 광산구 우산동 송우초등학교에서 열린 체험에서는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산 선수(광주은행 텐텐 양궁단)가 45명의 학생들과 함께 양궁 활쏘기 체험과 게임을 즐기며 양궁에 대한 매력을 알렸다.

안산 선수는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알리고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과 스포츠맨십 등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회까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가 내년 9월 열리는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붐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양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8일 송우초등학교에서 열린 양궁 체험 모습.

안산 선수는 "어린 학생들이 양궁에 대해 접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

을 함께 할 수 있어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양궁 체험 프로그램은 송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동구 2곳, 서구 2

곳, 남구 2곳, 북구 6곳, 광산구 2곳 등 모두 14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양궁을 더 가까이 접하고 양궁에 대한 매력을 즐기기를 바란다"며 "이 프로그램이 양궁의 저변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양궁에 도전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9월 5-12일)와 '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9월22-28일)는 2025년 9월 광주국제양궁장,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슬로건인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은 '5·18민주광장에서 쏘아 올린 화살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 평화를 기원하는 울림이 된다'는 의미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 정신'을 담았다. /박성강기자

전남도 '중소 육성' 중기부 장관 기관표창

지역경제·산업 현황 기반 맞춤형 지원 사업 호평

전남도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회 지역혁신대전 기념식에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육성 유공 표창은 17개 시·도의 중소기업 육성 실적과 계획을 종합,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심의 평가해 시상한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혁신 촉진 등에 기여한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남도는 사업추진 실적, 적정성 및 우수사례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지역 경제, 산업 전반의 현황

분석에 근거한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높은 지원 성과를 달성하고 중소기업의 지역 연구분야 사업 수요를 발굴해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전남도는 지난해 6개 분야 32개 사업, 총 1천864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금융지원·기술사업화 지원·맞춤형 인력양성·수출지원·성장단계별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우수 사례인 티젠의 콤포차는 온·오프라인 시장 확대 지원을 통해 매출액 580억원, 고용 110명(5년간 연평균 30% 이상 증가) 달성으로 700만달러 수

출입 수급 기업으로 성장했다. 티젠의 글로벌 감소기업 및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등은 전남도의 맞춤형 지원사업의 산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올해 7개 분야 39개 사업, 2천64억원의 예산을 지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기관표창 수상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남도와 기업인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중소기업 활성화와 혁신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기본형 공익직불금 4천573억 순차지급

도, 소농직불금 1천152억·면적직불금 3천421억

전남도는 10일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4천573억원으로 확정, 자격요건이 검증된 21만 농업인(법인)에게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21만명의 농업인(법인)에게 4천573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

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1천152억원(8만8천호), 농업인(법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3천421억원(12만9천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지급액(2조3천84억원)의 19.8%로 가장 많은 규모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엔 12월 중순에 지급했는데 올해는 빨리 지급하게 돼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도, 이주노동자 작업복 나눔 캠페인

6천300여벌 전문세탁소 세탁 과정 거쳐 배부

전남도는 지난 9일 영암 삼호실내체육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위해 이주노동자 대상 작업복 나눔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의 겨울 날씨에 익숙

하지 않은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됐다.

이주노동자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주관하고 지역 대기업과 유관기관, 도민이 동참했다.

전남도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현대삼호중공업, 기사자동차, 전남사회서

비스윈, 전남개발공사, 아름다운가게 등 대기업과 유관기관으로부터 5천100여벌의 작업복, 도민 장롱 속에 잠든 겨울옷 1천200여벌을 기증받아 작업복 전문세탁소에서 세탁 과정을 거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배부했다.

위광원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지역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상생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17%...최저치 또 경신

수도권·충청 하락... "尹 담화 반향은 더 지켜봐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경신해 17%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7%, 부정 평가는 74%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달 29-31일)에서 집권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인 19%를 기록한 이후 2주 연속으로 최저치를 경신하게 됐

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올라 현재 7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지율은 지난주 대구·경북(TK)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5%p 오른 23%를 기록했다. 지난주 TK 지지율은 취임 후 첫 10%대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 지지율(19%)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번 주는 반등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지율도 6%p 올라 28%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22%→17%), 인천·경기(16%→14%), 대전·세종·충청(29%→18%), 광주·전라(6%→3

%) 지지율은 모두 하락했다. 갤럽은 "4주 연속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며 "조사 기간 사흘종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반향은 더 지켜봐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p 하락한 29%, 더불어민주당이 4%p 오른 38%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4%였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생활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월산동 무진중앙 주거2중 대지152㎡ 신축건물87㎡
주차3대(추가가능) 식당, 대리점, 수리점 최적
재개발추진지 급매4억1,000만원

광주역앞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 등 최적
급매3.3당 1,200만원(조정가)

산수동 2차선 버스길접 33,900㎡
급매3.3당200만원
타운하우스,요식타운,위락단지,노유자휴양단지 등 최적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 | | |
|------|---|------|
| 외상대금 | 돈 | 빌려준돈 |
| 공사대금 | | 투자금 |
| 장비대금 | | 약정금 |
| 전세금 | | 임대료 |
| 부도어음 | | 구상금 |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